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19. 1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1
II. 미국 등 외국의 의심사례 발생 및 조치내용	1
III. 국내 의심사례 발생 및 검토내용	3
IV. 우리나라 및 미국·EU의 담배제품 관리체계	3
V.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현황	6
VI.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8

I

추진배경

-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현재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규명중이며,
 - 이와 관련, 미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 또는 판매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상황
-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II

미국 등 외국의 의심사례 발생 및 조치내용

① 미국의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 사례발생 >

- '19.10.15. 기준 중증 폐손상자 1,479명, 사망 33명 보고
- 중증폐손상자의 79%가 35세 미만(18세 이하가 15%)이고, 나이 중앙값은 23세(13~75세)로 젊은 층에서 위해사례 다수 발생
- 모든 환자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을 밝혔고, 감염에 의한 원인이 아닌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
 - 환자의 78%가 대마유래 성분인 “THC*”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10%는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

*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며, THC 함유 액상에서 상당량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 (THC 기화를 위해 첨가하는 비타민E가 변형된 것으로 추정)가 검출

< 조치내용 >

- CDC는 폐손상 발생의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규명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 자제 권고(9.6.)
- FDA는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발표(9.11.)

- ①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 ② 판매허가 결정전까지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

- 일부 주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긴급 판매금지 조치 실시
 - (메사추세츠)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발표
 - (워싱턴, 로드아일랜드)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발표

② 기타 주요국의 의심사례 발생 및 조치내용

- (캐나다) '19.10.17. 기준 중증 폐손상자 총 5건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10.11.)
- (이스라엘) 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9.24.)
- (말레이시아) 전자담배 판매 금지 검토(10.14.)
- (호주, 뉴질랜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호주 9.13., 뉴질랜드 9.30.)
- (인도) 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보관 금지(9.18.)
- (중국) 인터넷 판매업자(알리바바, JD.com)에서 줄(Juul) 판매 중단(9.13.) 및 보건당국자는 향후 전자담배 규제 계획 언급

III

국내 의심사례 발생 및 검토내용

① 의심사례 개요

- '19.9.20.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 보고(10.2.)
 - (경과) 30세 남성으로 9.28.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10.4. 퇴원
 - (담배 사용력) 일반담배 사용력(1일 5개비~1갑)이 있고, 발병 2~3개월 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줄, 릴베이퍼) 사용하다 정부의 자제권고로 입원 5일 전부터 사용을 중단

② 전문가 검토 결과

- ①90일 이내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 ②호흡기 증상 및 x-ray상 이상소견, ③감염관련 검사상 모두 음성, ④다른질환(심장, 류마티스, 암 등) 배제되는 것으로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에 부합
-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은 추가 사례 수집을 통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검토 필요

IV

우리나라 및 미국 · EU의 담배제품 관리체계

① 미국의 관리체계

- (관련법)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 (담배제품 정의*) 사람이 소비할 목적으로 연초(담배잎, 줄기, 뿌리 등 모두 포함)로 만들어지거나 파생된 제품으로 담배제품의 구성물, 일부분 또는 액세서리를 포함

* (영문) Means an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that i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including any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except for raw materials other than tobacco used in manufacturing a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 (관리체계) 2009.6.22일부터 2007.2.15. 이후 출시되는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해 시판 전 FDA의 판매허가 제도를 운영중(PMTA : 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
 - 담배회사는 담배제품의 건강위험, 기존 담배보다 덜 위험함을 증명하는 자료, 담배제품의 구성성분·첨가제 정보, 속성 및 작동원리 등의 자료를 제출
 - FDA는 전체인구(흡연자 및 비흡연자)에 미치는 유해성 및 이득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비흡연자 담배 사용 가능성, 흡연자의 기존 담배 중단 가능성 등)
 -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16.8.8. 기준 유통제품에 대하여 판매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2022.8.8.까지 FDA에 제출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19.7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료 제출기한을 2020.5.12.로 앞당김

② EU의 관리체계

- (관련법) EU 담배제품 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TPD)
- (담배제품 정의*) 유전자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연초(담뱃잎, 줄기, 뿌리 등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가 가능한 제품
 - * (영문) Means products that can be consumed and consist, even partly, of tobacco, whether genetically modified or not
- (관리체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성분, 첨가물, 배출물, 독성·중독성 등 사용자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를 정부에 제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출시 6개월 전)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출시 전 성분정보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시장조사 요약보고서(제품의 판매량, 판매방법, 청소년·비흡연자·현재사용자 등 사용자별 선호도 등 포함) 매년 정부에 제출

③ 국내 담배 관리체계

- (관련법) 담배사업법
- (담배정의)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만든 제품 (담배사업법 제2조)
- (관리체계) 담배 제조업자 허가 등 담배 취급자(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소매업) 관리*
 - * (제조업자) 기재부 허가 / (수입자 및도매업자) 시·도지사 등록 / (소매인) 시·군·구청장 지정
- 담배제품의 안전성, 유해성 관리체계는 궤련에 한하여 분기별 니코틴 및 타르 성분 분석을 지정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 이외에 규제 없음
- 특히,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액상 제품 등은 담배와 동일한 용도와 유해성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등 담배관리의 사각지대

< 미국과 국내 담배관리체계 비교 >

원료		담뱃잎	담배줄기·뿌리	흡연용 기구
우리 나라	분류	담배	공산품	공산품
	성분관리	궤련에 한해 니코틴·타르함량 표기	X	X
미국	분류	담배제품		
	성분관리	판매 허가 위해 원료, 유해성분 자료 FDA에 제출		

①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현황

- '18년~19.9월까지 반출량 기준,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이며, 11개 회사 36개 품목임.

- 다만,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줄기·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이 상당수 판매되고 있는 상황

액상형 전자담배		줄기·뿌리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
수입자	품목	약 70개 제품
11	36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온라인 모니터링)

- '19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량 및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량

구분	2016	2017	2018	2019.8월
반출량(ml)	605,335	843,161	354,130	14,373,053
부담금액(백만원)	318	443	186	7,546

-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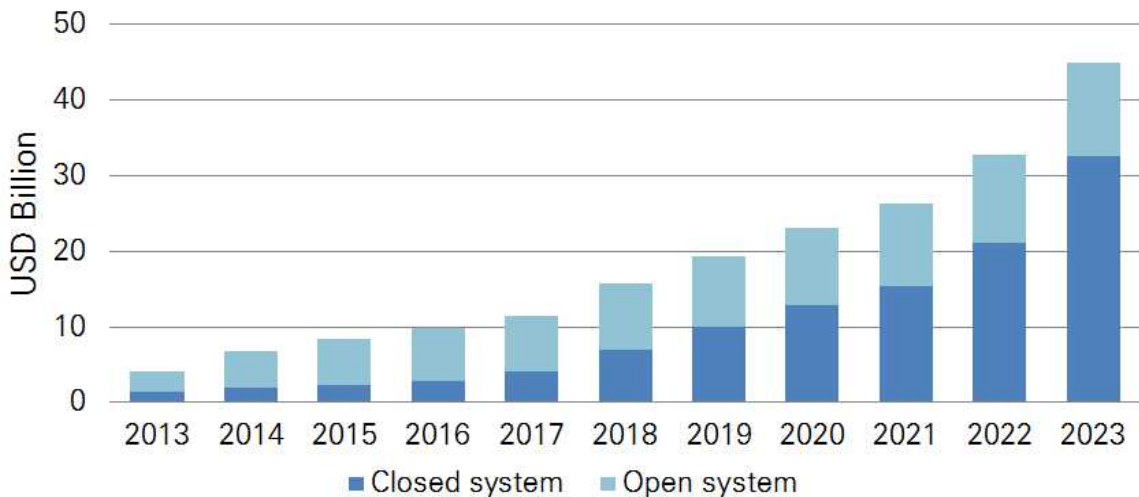
(단위 : L)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8월
합계	1,686 (100%)	1,670 (100%)	32,349 (100%)	21,890 (100%)	61,694 (100%)
잎 추출	1,683 (99.8%)	1,503 (90%)	711 (2.2%)	616 (2.8%)	14,177 (23%)
줄기 추출*	3 (0.02%)	167 (10%)	31,638 (97.8%)	21,274 (97.2%)	47,517 (77%)

②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 시장 동향

- WHO 및 시장조사기업(유로모니터)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특히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비중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판매량 추이, 2013-2023년 >



※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2019).

③ 전자담배 사용율

- (성인) '15년 대비 '16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사용율이 '17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사용율이 증가

* 전체 : 1.1%('13년) → 2.4%('14년) → 4.2%('15년) → 2.3%('16년) → **2.7%('17년) (+0.4%p)**
 남성 : 2.0%('13년) → 4.4%('14년) → 7.1%('15년) → 4.2%('16년) → **4.4%('17년) (+0.2%p)**
 여성 : 0.3%('13년) → 0.4%('14년) → 1.2%('15년) → 0.4%('16년) → **0.9%('17년) (+0.5%p)**

- (청소년) 계속 감소 추세였던 전자담배 사용율이 '18년 다시 증가하였고, 성인 사용율과 유사한 수준

* 전체 : 4.7%('11년) → 3.0%('13년) → 4.0%('15년) → 2.5%('16년) → 2.2%('17년) → **2.7%('18년) (+0.5%p)**
 남성 : 7.3%('11년) → 4.7%('13년) → 6.2%('15년) → 3.8%('16년) → 3.3%('17년) → **4.1%('18년) (+0.8%p)**
 여성 : 1.7%('11년) → 1.1%('13년) → 1.5%('15년) → 1.1%('16년) → 0.9%('17년) → **1.1%('18년) (+0.2%p)**

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

-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기재부, 복지부)
 - *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4건(이현재, 김승희, 윤영석, 정춘숙의원안), 담배성분 제출 및 공개 관련 법안(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회 계류 중
- 청소년·여성 등의 흡연 시작을 쉽게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기재부, 복지부)
 - * 가향물질 첨가 금지 관련법안 담배사업법 2건(박맹우, 박인숙의원안), 국민건강증진법 2건(김명연, 박병석의원안) 국회 계류 중
-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복지부)

② 액상형 전자담배 연구 조속 완료 및 사용 중단 강력 권고

-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 실시하여, 추가 의심사례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조속히 연관성 규명
 -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전문가
- 국가통계자료에서 파악된 전자담배 흡연경험자의 경우, 건강보험자료와 연계 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 검토(질병관리본부)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국소비자원)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완료하여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 추가조치 근거 확보

-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식약처),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 발표(질병관리본부)
-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 제공(복지부)
-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청소년과 교사·학부모, 의료인 등 대상별 권고문을 작성·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주의 환기

③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구 (기재부 등 관계부처)
 - * 「제품안전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료제출 요청
-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범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국가기술표준원)
-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 제한
-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

④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 니코틴액(향료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 불법행위 및 니코틴액 통관 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단속 강화(환경부, 관세청)
-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하여 유통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사 강화

- 통관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 징구(관세청)
-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관세청)
 - *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 및 줄기추출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
-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 실시(관세청)
-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관세청)
 - *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 진행 중

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교육·홍보 및 불법 판매행위 단속

- 지역주민, 교사 및 학부모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정보를 제공하여 교육·홍보 강화(복지부)
 - 담배취급자(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에게 취급제품의 성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매자에게 기기변형, 개조, 액상혼합 등 자제할 것을 안내토록 협조 요청(복지부)
-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제도·홍보 실시(여가부)
 - “인터넷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관측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 강화(복지부)
 - * 1% 이상 농도의 니코틴 용액은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쳐야 통신판매 가능

참고1

미국의 담배제품 판매허가제도

□ 개 요

- 관련법 :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T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
- 시 행 일 : '09년 6월 22일
- 주요내용 : '07년 2월 15일 이후 출시 신종 담배제품 대상 ① 시판 신청 (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s, PMTA), ② 본질적 동등성 입증 (Substantial Equivalence, SE), ③ 동등성 입증 면제(Exemption from the SE)의 절차를 거쳐 판매 승인

< 신종 담배제품(new tobacco product)의 정의 >

- '07년 2월 15일 기준 미국에서 정식 혹은 시범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은 모든 담배제품
- 담배제품의 개조디자인, 구성품, 제품의 일부 변화 또는 연기 성분, 니코틴 전달 또는 니코틴의 형태, 기타 첨가물 또는 성분 등 구성물질의 변화 등이 되었으며 개조된 제품이 '07년 2월 15일 이후 미국 내 판매된 제품

□ 세부내용

구 분	시 판 신 청	본 질 적 동 등 성 입 증		동 등 성 입 증 면 제
		임 시 승 인	정 식 승 인	
대 상 제 품	'07.2.15. 이전에 시판된 적 없는 제품	'07.2.15. ~ '11.3.22.에 시판된 제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07.2.15. 이전에 시판된 적 없는 제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07.2.15. 이전에 시판된 적 없는 제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기 준 제 품	(해 당 없 음)	'07.2.15. 이전 시판 제품	'07.2.15. 이전 시판 제품 또는 본질적 동등성 승인 제품	'07.2.15. 이전 시판 제품 또는 본질적 동등성 승인 제품
승 인 기 준	전체 인구(흡연자 및 비흡연자)에게 미치는 유해성과 이득, 기존 담배제품 사용자가 제품의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담배제품 사용을 시작할 가능성 등 공중 보건 보호의 적절성	기준제품과의 동일함 또는 기준제품과의 차이가 공중 보건 상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여부		기준제품을 미미한 수준 (첨가물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담배 첨가물의 양을 증가 또는 감소)으로 변형(개조) 여부
판 매 조 건	FDA 승인 전 판매 불가	'11.3.22.까지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별도 명령 전까지 판매 가능	FDA 승인 전 판매 불가	FDA 승인 전 판매 불가

참고2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 시대 이후 주요국가 조치 현황

□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발표

- (이스라엘) 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 시행(9.24.)
- (인도) 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보관 등 전면 금지(9.18.)
- (중국) 인터넷 판매업자(알리바바, JD.com)에서 줄(Juul) 판매 중단(9.13.) 및 보건당국자는 향후 전자담배 규제 계획 언급(9.25. 뉴시스)
- (말레이시아)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검토 발표(10.14.)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발표

- 호주(9.13.), 뉴질랜드(9.30.), 캐나다(10.11.) 보건당국은 대국민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 (공통 사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후 건강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진 방문
- 호주* 보건부 권고 주요내용

* 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국가임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및 소화기 이상증상이나 기타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 방문
- 의료진은 이유가 불확실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반드시 확인
- 환자의 폐 질환 등의 원인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 흡연자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금연을 시도해야 함. 정부 승인을 받은 금연치료약물 사용을 금연상담과 병행하는 것이 금연에 가장 효과적임.

※ 출처 : 호주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health.gov.au/news/e-cigarettes-linked-to-severe-lung-illness>)

- 뉴질랜드 보건부 권고 주요내용

-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 비흡연자는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는 무해한 제품이 아님
 - 전자담배 사용의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해 알 수 없음
 -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음

- 전자담배는 오직 흡연자들을 위한 제품임
 - 전자담배는 무해하진 않지만, 흡연보다는 덜 유해함
 - 전자담배는 덜 유해한 제품으로 바꾸길 원하는 흡연자들만 사용해야 함
 -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적은 유해성분을 배출
 - 과거흡연자는 재흡연을 할 생각이 없다면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전자담배는 제대로 된 소매점에서 구매해야 하며, 자가 제조하거나 불법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 용액에 다른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 사용 후 건강 이상을 느낀 사람을 의료진을 찾아갈 것을 권고
- 전자담배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다시 흡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됨

※출처 : 뉴질랜드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health.govt.nz/news-media/news-items/ministry-health-reminder-about-vaping>)

○ 캐나다 보건부 권고 주요내용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 국민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가 포함된 제품 및 불법적으로 구매한 제품 사용 자제 권고
-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폐 질환 관련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진을 방문
- 궐련 사용 중단을 위해 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 다시 궐련 흡연으로 돌아가선 안 됨
- 이번 폐 질환 사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내용을 명심해야 함
 - 흡연자가 아니라면 전자담배 사용하지 말 것
 - 청소년, 임산부,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권하지 않음
 -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즉시 사용 중단을 위한 도움을 구해야 함
 - 전자담배 사용자의 경우, THC 함유 제품 및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선 안 됨
 - 제조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조하거나 성분을 추가해서는 절대 안 됨
 -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알려야 함

※출처 :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news/2019/10/statement-from-the-council-of-chief-medical-officers-of-health-on-vaping-in-canada.html>)

참고3

담배 규제 관련 법안 국회 계류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계류 현황

○ 성분공개 및 가향(캡슐) 규제

내용	의원	발의날짜	진행상황
담배제품 수거해서 성분 검사·공개	김명연	'16.11.25	법사위
담배제조사에 성분 제출의무 부과하고 검사·공개	박주민	'17.1.23	
캡슐담배 판매 금지	김명연	'17.3.31	소위 상정
전자담배 등 가향물질 첨가 규제	박병석	'19.9.27	소위 회부

* 성분공개 관련 법안은 담배사업법과 병합 심사를 위해 2소위 회부('18.11.13)되었으며
부처 합의 반영한 수정안 제시하였으나 의원간 의견불일치로 보류('19.3.26)

□ 담배사업법 계류 현황

○ 성분공개 및 가향물질 함유 규제

내용	의원	발의날짜	진행상황
유해성분 최대함유량 초과 담배 판매 금지, 담배제조사에 유해 성분 제출의무 부과, 검사·공개	박맹우	'16.7.28	법사위
가향물질의 함유량 등을 정하여 제조 판매 규제	박맹우	'17.11.28	소위 상정
가향물질 함유량 기준 및 초과담배의 판매규제	박인숙	'18.1.31	소위 상정

○ 담배 개념 정의 변경

내용	의원	발의날짜	진행상황
담배 개념 정의 수정(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봄), 액상형 전자 담배 영유아 보호포장 도입	이현재	'16.12.26	소위 상정
담배 개념 정의 수정(잎, 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	김승희	'19.2.15	소위 상정
담배 개념 정의 수정(연초나 니코틴)	윤영석	'19.6.3	소위 상정
담배 개념 정의 수정(잎, 줄기, 뿌리 등)	정춘숙	'19.9.27	소위 회부